

# 名山에서 얻은 教訓

김 응 태

금년 들어 수유 여중은 북한산에서, 개교(1971. 3. 3) 이래 처음으로 43학급의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봄소풍을 대신하여 산행을 실시했다.

급이쳐 흐르는 북한산 줄기 중에서 비단자락을 펼쳐 놓은 듯한 산이 하나 있다. 먼 발치에서 보면 흡사 주둥이가 좁고 배가 부른 약탕기를 연상케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삼각산이라 부른다. 산 중앙에는 자비로운 불상을 모신 화계사가 자리잡고 있고 왼쪽 발등 위에 아담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유 여중이다.

산행 경로로 1 학년은 도선사 입구-대동문-북한산장, 2 학년은 4.19탑-백련사-대동문-북한산장, 3 학년은 도선사 입구-용암문-북한산장에 도착하는 길을 따라 실시되었다. 요즘의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 직접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다 보면 그와 같은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도 너무 실리주의에 치우쳐 過程을 무시하고 지름길만 택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안타까울 정도로 자주 발견된다. 그것은 좁은 가슴에서 새어 나오는 여리디 여린 소견이다. 이번 북한산 일원에서 실시된 산행은 학교든 가정이든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킬 줄 아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성장한 여학생들에게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를 반성하게 해 주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등산로를 따라 계곡 깊숙이 접어들수록 여학생들

의 조잘거림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비단 힘겨움에 지친 탓만은 아니었으리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연두색 비단자락을 펼쳐 놓은 듯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산 속에 제각기 모습을 달리한 채 흩어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숨결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계곡을 타고 흘러 내리는 맑은 물이 오만 형상의 돌에 부딪혀 깔깔거리고, 기슭에 무더기 무더기 핀 진달래가 소리 없는 미소로 답례하고, 울퉁불퉁 솟아 나온 크고 작은 바윗돌이 발걸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친 심신을 달랠다가 다시 출발하게 해 주는 휴식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흐르는 계곡물에 수건을 적시어 이마의 비지땀을 훔쳐내면서 막 피어나는 나뭇잎이 부쳐주는 부드러운 산바람에 가슴을 부풀리는 모습이 안스러워 「쉬었다 갈까?」하는 제안을 「저기가 정상인걸요」라는 말로 마다하는 아이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서 밝은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출발 직전의 호기심 섞인 불안과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겪었던 힘든 과정이 한순간에 보상되고 있음을 여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실로 실감나게 느꼈다. 두 시간여 인내하고 올라와 두 시간 남짓 점심 시간, 자유 시간, 오락 시간밖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줬던 여학생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싹을 보았다면 부질없는 속단일까!

명산 순례를 통한 청소년의 심성 단련은 일찌기

신라 시대의 화랑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삼국 통일  
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  
가 취한 수양 방법 중에는 명산을 찾아 다니며 자  
연의 순리를 배우고,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국토애  
(國土愛)를 자연스레 익혔던 덕목이 있었다. 비탈  
진 기슭에서도 곧게 자라나는 수목과 거대하고 웅  
장하면서도 그늘진 곳에 움츠리고 있는 보잘것 없  
는 산풀조차도 온기어린 흙으로 뿌리를 감싸주고  
있는 산의 포용력을 대하면서 산의 정기를 한껏 들  
어 마셔 부풀린 가슴 속에 높고 큰 이상을, 그리고  
조국애를 심어 싹틔운 결과가 화랑으로 하여금 삼  
국을 통일하게 하였을 것이다.

화랑의 기백과 정신이 한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  
아서는 안될 것이다. 요즘에도 청소년 수련 모임  
이 있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화랑  
정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극기심을 심어 준다는 목적  
으로 누리단, R. C. Y, G. S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연합 야영도 실시하고 국토 순례나 산업 시찰 등  
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다.

청소년의 심성 수련에도 새 시대의 새 용어로 각  
광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에 걸맞게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하산 과정에서 보여준 여학생들의 자세는 때마  
침 등산왔던 어른들의 가슴을 더욱 호뭇하게 만들  
었다. 등에 매달린 배낭조차도 주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여학생들의 손에는 산장 주위에 널려 있  
는 쓰레기를 주어 모아 담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럼 없는 모습으로 올라 왔  
던 길을 되돌아 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웅색하기 그  
지없는 시내의 광경을 신기해 했다. 나중에 북한산  
동부 관리 사무소에서 보낸 「자연 보호 실시에 관  
한 감사 답신」과 북부 교육 구청에서 발송한 「봄소  
풍 행사시 자연 보호 캠페인 우수 학교」 통보를 통  
해서 안 일이지만 이날 여학생들이 손에 들고 온  
산쓰레기의 양이 5톤 가량 되었다고 한다. 찬사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산행을 통  
하여 산의 소중함을 깨달아 스스로 빚을 발휘한 자  
연 보호 정신의 승화라고 여겨진다.

북한산은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서  
울의 북서쪽 외곽을 감싸고 도는 북한산 줄기를 통  
하여 연두빛 치마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싱그러운  
산기운과의 만남은 아침 출근길마다 누리는 봄의  
향연이다. 그것은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라 배부른  
약당기에서 피어나는 불로향이다. 비단 특정민만이  
누리는 아침의 향연이 아니건만 동조받고 싶은 충  
동에서랄까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던지는  
첫마디로 산안개 자욱이 서린 북한산 얘기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의아  
해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  
는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산, 연두빛 치마  
자락을 늘어뜨린 아름다운 자태, 질푸른 초록으로  
인간을 격려하는 왕성한 생명력, 흥륙으로 주위와  
어울릴 줄 아는 마술같은 조화, 온몸에 허연 서릿  
발을 달고도 꼬덕 앓는 강인한 모습을 대하면서 인  
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제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가리켜 온실 속의  
화초니, 현실 적응력이 없으니 하는 말로 그들의  
나약함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끄집어  
내는 계기를 교육 현장에서 창출해 내는 운영의 묘  
를 살릴 때가 된 것 같다. 경제적 성장으로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만큼, 이 아  
름다운 봄에 학교에서 산행의 의미를 심어주고 이  
것을 계기로 가정 생활을 통하여 자주 실행에 옮  
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산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출발의 설레임과 두려움, 오르는 과  
정에서 느끼는 힘겨움, 정상에서의 성취감, 하산하  
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아쉬움,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와 가슴 속에 담고 온 그 순간들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청소년들의 맑고 고운 심성에 접목시  
켜 호연지기의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줘야 되겠다.

(筆者 : 서울 水躑女子中學校教師)

## 더 푸르고 깨끗하고 조용한 국립공원